

한국 AVL, 아주대학교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MOU



한국 AVL(AVL Korea, 대표이사 김진형)은 6 월 17 일(수)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 AVL 대표이사(김진형), 부사장/총괄부서장(Gerald Hochmann), Advanced Simulation Technologies 총괄부서장(손민혁), Integrated and Open Development Platform 선임팀장(배성원), Marketing 팀장(김경아)과 아주대학교 LINC+교육혁신부단장(강경란), 기업지원센터장(이성엽), ACES 모빌리티 ICC 센터장(책임교수)(송봉섭), LINC 사업팀장(진성호)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한국 AVL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증 및 아주대학교의 교육 인프라 활용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의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센터 설립

및 공동 운영, 그리고 ▲정부과제 공동 컨소시엄 참여 등 산학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AVL 김진형 대표는 “기계 자동차 분야에 오랜 전통과 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창의적 융합 교육 환경을 지향하는 아주대학교와 금번 산학협력 교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미래형 산학협력 모델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상호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강경란 LINC+사업 교육혁신부단장은 “아주대는 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특화 산업 분야의 기업협업센터(IC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의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며 고도화에 힘쓰겠다” 라고 화답했다.



한국 AVL의 본사인 AVL List GmbH는 1948년 창립 이래 70여년동안 모든 운송수단들의 파워트레인 시스템(엔진, 변속기, 모터, 배터리, 연료전지 및 제어기술)의 개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솔루션을 선도하여 온 세계 최대의 독립 기업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트렌드에 적합한 선도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 45개 지사 내 11,5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AVL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송도의 기술연구소, 안산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센터, 창원의 경남 오피스까지 총 4개의 사업장에서 150여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av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